

# 獨島는 우리 땅, 日本公文書 發見

## 서울大 愼鏞廈 교수, 獨立運動史 研究輯서 公開

獨島가 한국의領土임을 밝힌 日本政府의 公式文書와 日本서 제작된 1860年代의 地圖가 國內서 처음 공개되었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최근 펴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 3집」에서 인용하 서울大교수는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論文에서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밝힌 日本政府의 公式文書用, 「獨島는 日本領土인데 韓國이 不法 占領하고 있다」는 日本側의 獨島領有權主張을 前面으로 반박했다. (12. 15. 한겨레신문 보도)

愼교수가 이번에 公開한 資料는 日本 明治政府 當時 최고 국가기관이던 태정관(조선 王朝와 大韓帝國의 議政府에 해당)과 外務省이 獨島와 鬱陵島가 日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朝鮮의 附屬領」임을 밝힌 外務省의 公式文書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와 「총회도」, 「조선국세견전도」라는 日本사람이 제작한 地圖 2點이다. 이 地圖들은 日本을 赤色, 韓國을 黃色으로 彩色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韓國과 같은 色으로 칠해 이들 섬이 한국영토임을 묘사하고 두섬 옆에 「朝鮮의 所有」라 쓰여있는 것인데 이들자료와 地圖의 發見, 公開로 獨島領有權을 둘러싼 韓日間의 領土紛爭은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는 1869년 日本 明治政府가 조선과의 國交확대 재개와 征韓의 가능성을 내담하기 위해 日本外務省의 高位관리들을 파견했을 當時 이들 官吏가 日本政府에 內探結果를 보고한 復命書로서 內容가운데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이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愼교수는 이 記錄이 「日本의 明治政府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한 최초의 日本政府의 公式文書」라고 밝히고 「이것은 당시 日本의 外務省과 태정관이 確認하고 「日本外

交文書」에도 收錄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歷史的 眞實」이라고 主張했다.

愼교수는 이와함께 1877年 「울릉도와 독도를 日本領土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日本政府의 要請에 대해 外務省이 「두섬은 日本과는 關係가 없는 朝鮮領土」라고 再次 확인한 日本外務省 公武文書와 이같은 事實을 土臺로 태정관이 「두섬은 朝鮮領土」라고 最終決定한 內務省公式文書を 各各 公開했다. 이 文書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이므로 日本 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적혀 있다.



▲ 明治政府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明治 10年) 竹島(울릉도), 松島(독도)가 조선영토라 판단.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이므로 日本地籍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內務省에 내려보낸 公文書(日本國立公文書館所藏)